'묵은지 영화' 늦깎이 개봉작들 '흑역사' 깰까

7년의 밤, 베스트셀러 원작…내달 개봉

궁합, 역학 시리즈 두번째…이달 개봉

맛집으로 유명한 김치찌개 식당은 대부분 담근 지 2년 이상 된 묵은지를 쓴다. 최적의 온도에서 긴 시간에 걸쳐 숙성된 김치는 갓 무쳐낸 겉절이와는 또 다른 깊은 맛을 내기 때문이다.

이런 공식이 영화에도 적용된다면 촬영 종료로부터 개봉까지 긴 시간 소요된 영화는 관객에게 더 다양한 재미와 깊은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 '묵은지 영화' 혹은 '창고 영화'라고도 불리는 늦깎이 개봉작 2편이 올 상반기 관객들과 만난다.

모두 CJ엔터테인먼트의 투자배급작이다. 국내 투자배급 업계 1위인 CJ는 4강(CJ, 쇼박스, 롯데, NEW) 중 가장 많은 영화를 만든다. 연간 10여 편이 넘는 영화를 배급하면서 개봉 영화의 순번은 유동적으로 바뀌기 마련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화의 재미와 완성도다. 잘 만든 영화는 눈치 볼 여지가 적다. 그럼에도 여러 부수적 요소, 이를테면 ▲ 영화의 내·외부적 요인 ▲ 경쟁작 추이 ▲ 배우 스케줄 등을 고려한 끝에 개봉 시기를 잡는다.

두 영화의 개봉 지연은 이같은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 결과였다. 크랭크업(촬영 종료)으로부터 2년, 오래도 걸렸다. 그러나 분명 따끈따끈한 신작이다.

◆ 7년의 밤 · 궁합, 드디어 빛 본다

'7년의 밤'(감독 추창민)이 드디어 개봉한다. 이 영화는 세령호에서 벌어진 우발적 살인 사건.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걸 잃게 된 남자 '현수'(류승룡)와 그로 인해 딸을 잃고 복수를 계획한 남자 '영제'(장동건)의 7년 전의 진실, 그리고 7년 후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그렸다. 2011년 출간돼 큰 사랑을 받았던 정유정 작가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다.

류승룡과 장동건, 고경표 등이 주연으로 캐스팅되고, '광해, 왕이 된 남자'(2012)로 천만 관객을 동원한 추창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화제를 모았다.

2016년 5월 25일 크랭크업한 영화는 오는 3월 개봉을 확정했다. 1년 10개월 만의 개봉이다. 보통의 영화가 촬영을 마친 후 후반 작업에 들어가 6개월 이내로 개봉하는 패턴을 볼 때 1년 이상 개봉이 지연된 것이다.

'7년의 밤'은 제작 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문제와 CJ엔터테인먼트의 내부 라인업 조정으로 개봉일이 확정되지 못했다. 그 사이 주연 배우 류승룡과 장동건의 차기작 '염력'과 'V.I.P'가 먼저 선을 보였다.

최근 '염력'의 개봉을 앞두고 만난 류승룡은 '7년의 밤'의 늦은 개봉에 대해 "연기된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감독님을 비롯한 제작진들이 지금도 영화의 엑기스를 농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요즘처럼 빨리 만들고, 빨리 소비되는 시대에 긴 시간 공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영화는 드물다. 기대해 달라"고 항간의 우려를 불식하는 말을 전했다.

숙성도로 치면 '7년의 밤'보다 '궁합'(감독 홍창표)이 더 높다. '궁합'은 궁중의 정해진 혼사를 거부하는 송화 옹주(심은경)와 각기 다른 사주를 가진 부마 후보들의 궁합을 보기 위해 입궐한 천재 역술가 서도윤(이승기)의 운명을 그린 영화. 2013년 개봉해 전국 900만 관객을 동원한 '관상'에 이은 역학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다.

이 작품은 2015년 12월 23일 크랭크업했다. 주연배우인 이승기는 이 작품을 찍고 입대했다. 그러나 개봉은 제대 후 이뤄지게 됐다. 군 복무 중 개봉을 예상했던 이승기는 홍보 영상까지 찍고 입대했지만, 쓸 일은 없었다.

'궁합'은 지난 2년간 마땅한 개봉 시기를 잡지 못했고, 다행히(?) 이승기가 홍보에 참여할 수 있는 지금 개봉하게 됐다. 이 사이 역학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인 '명당'(감독 박희곤, 투자배급 메가박스 플러스엠)마저 촬영을 마치고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개봉 지연으로 인해 '궁합'을 설에, '명당'을 추석에 선보일 수 있는 괜찮은 그림이 완성됐다.

◆ 묵은지 공식, 영화에는 안 통했다?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보면 묵은지 공식은 영화에서만큼은 통하지 않았다. 촬영 종료로부터 개봉일까지 1년이 넘게 걸린 영화들은 대부분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도 창고 개방이 있었다. 쇼박스가 투자배급한 '희생부활자'와 메가박스 플러스엠이 투자배급한 '미옥'이 대표적이다.

곽경택 감독의 '희생부활자'는 7년 전 강도 사건으로 살해당한 엄마가 살아 돌아와 자신의 아들을 공격하면서 벌어지는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 2015년 12월 21일 크랭크업 했으나 개봉은 2017년 10월 12일에 이뤄졌다. 개봉 시기가 미뤄지면서 영화의 완성도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도 뒤따랐다.

공개된 영화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전국 32만 명의 관객을 모으는 데 그쳤다. 전작 '극비수사'(2014)로 286만 흥행에 성공하며 기세가 좋았던 곽경택 감독은 '희생부활자'로 흥행의 쓴맛을 봤다.

'미옥'(감독 이안규)의 성적도 처참했다. '소중한 여인'이라는 가제로 촬영을 시작해 2016년 4월 28일 크랭크업 한 영화는 1년 7개월만인 지난해 11월 9일 개봉했다. 이 영화도 개봉 시기를 섣불리 잡지 못하며 내부 논의만 반복됐다. 역시나 완성도에 대한 물음표는 커지기 시작했다.

제작진은 최종 제목을 '미옥'으로 바꾸며 재정비에 나섰다. 그러나 여성 느와르에 마케팅 방점을 찍은 영화는 기대를 밑도는 완성도로 평단과 관객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 늦깎이 개봉작, 흑역사만 있었다? 천만에!

흑역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지난해 9월 개봉한 '살인자의 기억법'(감독 원신연)은 1년 늦은 개봉에도 전국 265만 관객을 돌파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 작품은 2016년 1월 30일 촬영을 마쳤고, 2017년 9월 개봉했다. 관객과 만나는데 1년 8개월이란 긴 시간이 걸린 셈이다. 쇼박스는 "내부 라인업 조정으로 해를 넘겨 개봉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작진은 이 시간을 허투로 보내지 않았다. 결말만 26가지 버전이 있다고 할 정도로 풍성한 이야기를 자랑한 영화는 후반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결과적으로 개봉 연기는 흥행의 호재로 작용했다. '살인자의 기억법'은 비수기인 가을 극장에서 15일간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키며 300만 명에 육박하는 관객을 동원했다. 흥행에 힘입어 결말이 바뀐 감독판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 영화에서 호연한 설경구는 4전 5기만에 손익분기점 돌파작을 내며 한동안 구겼던 자존심을 빳빳하게 폈다.

CJ엔터테인먼트의 창고 개방은 보물 창고가 될 것인가. 재고 처분이 될 것인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궁합'은 2월 28일, '7년의 밤'은 3월 말 개봉한다.

잔인하다고 욕먹던 '리턴', 알고 보니 쫄깃한 스릴러

도대체 이 드라마의 무엇이 이토록 시선을 잡아끄는 걸까. SBS 수목드라마 '리턴'은 스릴러 장르가 가진 고유한 특징인 반전의 묘미를 극대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와인바를 운영하던 염미정(한은정)이 살해됐고, 그로 인해 그와 내연관계를 가져온 강인호(박기웅)가 구속되었다. 하지만 강인호는 무고함을 주장하고 대신 그의 악당 친구들, 오태석(신성록), 김학범(봉태규) 그리고 서준희(윤종훈)가 의심을 받는다.

그런데 드라마는 돌연 이 악당들의 시선으로 그들 역시 이 살인사건에 갑자기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들이 살인범이 아니었다는 것. 김학범이 오태석에게 보낸 차 트렁크에서 염미정의 사체가 발견되었고, 그들은 그 사체를 오태석의 사유지인 강원도 채석장에 묻어버리지만, 사체는 엉뚱하게도 어느 도로 위에 놓여진 트렁크 속에서 발견된다. 이 악당들 이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걸 드라마는 은연 중에 보여준다.

한편 절친인 강인호가 살인누명을 쓰고 검거된 상황을 자백하기 위해 나섰던 서준희가 오태석과 김학범에 의해 붙잡혀 싸움을 벌이고, 김학범이 돌로 내리쳐 쓰러진 서준희를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태석은 일부러 사망한 걸로 속여 차에 태워 벼랑으로 밀어버린다. 사체 유기 사건을 덮으려 오태석이 서준희를 제거하려 한 것. 하지만 드라마는 또 서준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스토리 진행 방식은 '리턴'이 가진 특징이다. 악당들에 의해 사건이 벌어지지만 그 사건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 악당들이 진범일 거라 추적하는 최자혜(고현정) 변호사와 강인호의 아내이자 변호사인 금나라(정은채) 그리고 형사 독고영(이진욱)은 그래서 그 엉뚱하게 흘러가는 사건에서 새롭게 연루된 인물들을 하나씩 만나게 된다. 그 첫 번째는 독고영의 파트너 형사인 김동배(김동영)이고, 두 번째는 악당들의 펜트하우스 아래층에 살고 있는 김정수(오대환)다.

진실에 다가갈 때 엉뚱한 진실이 다시 등장하고, 진범인 줄 알았던 악당들이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사건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만들며, 전혀 무관해 보였던 김동배 같은 인물이 사건에 연루된다. 이렇게 사건은 점점 갈수록 미궁속으로 빠져들어가지만 드라마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의문의 인물을 투입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더 점입가경으로 만든다. 스릴러 장르가 가진 진실에 대한 궁금증을 끝없이 뒤집는 것으로 '리턴'은 고유의 동력을 만들어간다.

흥미로운 건 '리턴'이 가진 여러 관점들의 교차다. 이 드라마는 복잡해 보여도 어느 정도는 사건의 윤곽을 예측할 수 있다. 즉 가진 재력을 바탕으로 갖가지 갑질과 악행을 저질러온 악당들, 즉 강인호를 포함해 오태석, 김학범, 서준희를 누군가 살인사건의 곤경 속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 사건의 '설계자'는 그들이 스스로 파국에 이르게 만든다. 그 설계자는 분명 과거 이들에 의해 끔찍한 사건을 겪은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리턴'에는 악당들의 시선과 이 사건을 쫓는 변호사와 형사의 시선 그리고 이 전체를 관망하는 '설계자'의 시선이 교차된다. 변호사와 형사는 그래서 악당들을 추적하고 그 와중에 드러나는 설계자를 통해 서서히 밝혀지는 진실을 만나게 된다. 즉 살인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그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악당들이 가진 권력과 금력으로 저질러온 갑질과 사건은폐 같은 사회적 사안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고 보면 '리턴'은 스릴러로서의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사건 전개가 주는 재미는 물론이고 그 궁금증으로 파고들어가는 사안들이 진실을 드러낼 때 보여주는 사회적 의미까지 담아내는 작품이다. 우리가 이 드라마에 이토록 집중하게 되는 건 그래서 스릴러 장르의 반전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사회적 사안들(권력과 재력으로 자행되는 사회의 시스템)의 진실이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신동엽 · 은지원 · 경리, '커밍쑨' MC 확정

채널A가 영화토크쇼를 선보인다.

개그맨 신동엽, 가수 은지원, 배우 김기방, 가수 경리, 영화감독 이원석은 채널A 신규 예능 프로그램 '천만홀릭, 커밍쑨'(이하 커밍쑨)에서 MC 군단으로 뭉친다.

오는 2월 중 첫 방송 예정인 '커밍쑨'은 개봉을 직전에 둔 영화의 주연 배우들과 감독이 출연해 깊이 있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는 영화토크쇼다. 러닝타임 내내 배우와 감독이 작정하고 영화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누는, 순도 100% 영화 예능을 모토로 내걸고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일 예정이다.

오늘의 운세 2018년 2월 2일 금요일 (음력 12월 17일)

▶쥐띠 인내만이 자신을 지켜주는 무기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참는 것이 상책이다. ㄱ, ㅁ, ㅂ 성씨는 변화가 있겠으니 심사숙고해 결정하라. 방향을 원하면 북, 동쪽이 길하다. 3, 8월생은 길하다.

▶소띠 작은 것을 모아 큰 것을 이룩하는 시기다. 만인에게 인기도 한 몸에 받을 수 있으나 언행에 따라 상반될 수도 있다. 주의하라. 귀인은 서, 남간에 있으니 문을 두드려라. 열리리라. 1, 7, 11월생 동업은 삼가라.

▶호랑이띠 작은 일로 적을 만들지 말라. 큰 도움을 청할 때가 있을 듯. 매사 유비무한으로 정도를 행하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해도 무난히 해결할 수 있겠다. 5, 9, 11월생은 이성 간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

▶토끼띠 공인이라면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아 인기를 한 몸에 받겠다.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높음을 받는 비결이다. 애정은 여자로 인해 냉가슴 앓는 격. 3, 5, 9월생 소문에는 귀를 막고 살라.

▶용띠 최선을 다한 뒤 나타나는 결과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때로는 노력한 만큼 대가가 없어도 내일을 위해서는 웃음으로 넘기라. 인간은 오늘만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현재의 고통은 내일을 위한 발돋움임을 알라.

▶뱀띠 하는 일에 난관은 있겠으나 과감히 좌절의 벽을 뚫고 나가면 계획 이상 수확이 크겠다. 직장인은 동료 간 유대관계가 원만하지 못 할 듯하니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늦은 귀가를 삼가라. ㄱ, ㅂ, ㅊ 성씨 자기 일에 책임져야 할 때.

▶말띠 자신의 분수를 알고 처신을 바르게 해야 한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헛발을 딛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다. 마음은 싫은데 그 사람의 체면 때문에 결정하게 될 경우 후회 속에서 눈물을 흘리겠다. 북쪽 사람 조심.

▶양띠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희비가 엇갈리는 오늘이다. 1, 4, 9월생은 새로운 각오로 열정을 다해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듯. 한마음으로 둘을 선택하면 그 마음은 병에 걸려 있다. 실속 없는 욕심이 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라.

▶원숭이띠 같은 사람을 어느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어느 사람은 미워하게 된다. 바로 그 점이 배필과 인연이다. 판단을 잘 해 선택하라. 모든 것은 마음에서 하는 일이니 그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할 때다. ㅅ, ㅊ, ㅂ 성씨 한 말에 책임지라.

▶닭띠 기쁨이 지나면 쓸쓸함이 오지만, 이번 일에는 그런 기쁨이 아니다 어려운 일은 속으로만 애태우지 말고, 가까운 사람과 의논해 풀라. 애정으로 인한 것은 부모님께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할 것. 한 번 과오는 돌이킬 수 없는 법임을 알라.

▶개띠 한 가지 일로 여러 사람이 경쟁할 운이다. 혼자 사리사욕을 챙기려 하지 말고, 이웃 간 애정사도 참석하고 유대 관계를 원만히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시작한 일은 경험이 모자라 뛰고 있는 격. 소신껏 할 때 서서히 풀릴 듯.

▶돼지띠 잘 익은 과일은 빨리 떨어진다는 증거가 있듯 성급하게 잘 이뤄지기를 원하면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위태롭다. 심사숙고해 결정하라. 3, 8, 9월생 자기 사람은 미워하면서 남의 사람 좋아하는 것은 죄악이다.